

다산포럼



김성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 교수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등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연일 비명을 지른다. 한반도의 남북 관계는 평화의 길을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강제 휴식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읽는 김연수 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이 가슴을 후려친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우난골죽'으로 유명한 시인 백석의 북에서의 삶과 고뇌를 그린 장편이다. 해방 전 남북을 아우르는 예술 시인 소월의 뒤를 이어 식민지 백성의 애환을 민요적 절창에 담아 이름을 떨쳤으나, 북에서는 '실패한 시인'으로 쓸쓸하게 그려져 간 사연을 담았다.

주인공 기행(백석의 본명)은 당 정책에 맞는 선전시를 쓰라는 강요에 소극적

휴전선 위에 떠도는 문학적 망령의 해원

인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문학 번역으로 간신히 존재를 증명한다. 1956년의 일시적 해방기에 '동화시' 논쟁에서 잠시 본심을 드러냈다가 부르주아 미학 사상의 잔재로 몰려 '삼수감산'의 그 삼수 산골짜에서 쓸쓸히 여생을 마친다.

안도현 시인의 스테디셀러 '백석 평전'과 함께 읽었지만, 평전의 절반도 안 되는 소설을 읽는 데 시간은 배가 넘게 걸렸다. 소설의 플래시백과 빈틈 채워 읽기가 영 편하지 않았다. 1950년대 북 문단 정황을 마리로는 소상히 알고 있었지만, 이 불운한 시인의 환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원을 풀어내는 일이 참으로 어려웠다.

그래서일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백석을 '기행' '흰돌'로, 한설야를 '병도'로, 이태준을 '상허'로 칭한 것조차 눈에 밟힌다. 압권은 월북 만담가(개그맨) 신불출을 시종 '신안남'으로 칭하는 대목이다. 당 문예정책에 따라 체제를 선전하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이 '신나지 않음'으로 읽히는 것이다.

백석-설야-상허를 비롯해 월북 작가는

한동안 금기의 대상이었다. 남북의 역대 권력은 '월북-월남'한 '정치적·이념적 타자'인 작가 예술가를 '빨갱이, 부르주아 반동'으로 금지하였다. 그나마 남에선 '남-월북 작가 예술인 해금 조치'(1988)로 금제(禁制)가 풀려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아직 완고하게 남은 반공-냉전 이념 때문에 이들 중 소수만 교과서, 문학전집, 문학사에 들어왔다. 더 많은 작가와 작품은 학자들에게만 복권-복원되었을 따름이다.

가령 김소월이 1934년 자살하지 않고 해방 후까지 생존해서 '영변에 악산 진달래꽃'의 고향 집인 평북 정주에 머물러 활동했다면 어땠을까? 꼼짝없이 월북시인으로 몰려 우리는 국민 애송수 '진달래꽃'을 커녕 그의 존재조차 모를 뻔했다. 이미 그런 예로 이제는 민족대표 시인이 된 이용악과 백석이 있지 않은가. 실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월북한 것이 아니라 당 문예정책에 따라 체제를 선전하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이 '신나지 않음'으로 읽히는 것이다.

이제 '월북'이란 공안 통치적 발상의 낙인찍기를 지워 버릴 순 없을까. 월북은

악이고 월남은 선이며, 월북은 범죄요 월남은 귀순(북에선 탈북을 패륜시한다)으로 부르는 자체가 중세적 이분법이다. 이런 식의 반문화적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남북자는 피해자이고 월북자는 범죄자이며 재북자는 미필적 가해자란 공안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월북-재북은 월남-재남의 거울이다. 그들 모두 분단과 냉전의 피해자이며 문화적 시민권자라고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남-월북'에서 '재-월북'으로, 다시 '피해자 복권'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자. 그러면 공안 통치적 배제와 숙청이라는 '빨갱의 문화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탈냉전-평화 체제를 지향하는 '통합과 포용의 문화사'로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백석뿐만 아니라 임화, 김남천, 이원조, 서만일 등 남북에서 지위진 작가의 신원-해원(伸冤/解冤)이 아말로 진정한 문화적 통합과 통일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관이 크게 달라진 지구촌에서 남북 관계도 이제 20세기 냉전시대에 머물 수는 없다.

기고



조옥현  
전남도의회 의원

기술 혁신으로 한국은 참 살기 편하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골목마다 하나씩 들어서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무엇이든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택배는 또 어떤가? 이제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 집 문앞에 로켓 배송 된다. 이런 편리함 속에 존재하지만 애써 외면해 온 노동, 프리랜서의 현실이 있다.

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사로 제공하고 실제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아 스스로 노동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또 다른 형태의 특수 형태 근로자인 플랫폼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소속 없이 도급 계약이나 위탁 계약 형식으로 일종의 파트너십 관계인 프리랜서인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탓에

세상 모든 '벼룩들'이 함께 잘사는 세상을

관련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 위기 이전에는 회사가 평생 고용을 책임지던 시대였다. 특히 대기업 직원의 경우 명함 하나만 만나 오케이이고 그 사람의 수입, 지위, 신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러나 국가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IT기술 등 통신 수단이 발달하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줄도산으로 대량 실직 사태라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른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후유증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많은 차별과 부당 대우를 당하는 노동 정책의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세계 최고 경영사상가 중 한 명인 찰스 핸드(Charles Handy) 박사는 저서 '코끼리와 벼룩'에서 이미 20년 전 '개인화 기업의 생존 위기', '조직의 해체' 등 노동시장 변화를 한발 앞서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코끼리와 같은 거대 조직에 기대지 않고 벼룩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프리랜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 지능, 디지털

화, 로봇화, 모바일화 등 기술의 발달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산업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실제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벼룩'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3분지 1이 프리랜서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 10%가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술 진보가 더 많은 일자리와 생산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저속된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은 프리랜서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생 고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와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결혼이 필수인 시대이기도 했다. 평균 수명이 짧아서, 정년 퇴직 후 노후 걱정도 별로 하지 않던 시대다.

비정규직이 아닌 고용 없는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비자발적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자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 프리랜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려

운 상황에서 결혼이란 '장기 계약'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안정적인 고용이 없는 남성과 안정적인 직장인인 '골드 미스' 간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에 대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골드 미스의 경우 적령기의 눈높이에 맞는 짝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인 없는 남성의 경우 짝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고용 문제, 노동 형태에 대한 해결 없이 결혼 기피로 인한 저출생 문제(저출산이 아니다. 아이 문제는 남녀와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므로 저출산이란 단어는 쓰지 말자)는 풀 수 없다.

국가는 갈수록 양산되는 프리랜서(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1인 기업 등)에 대한 '노동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 전남도도 사회적 공헌화를 거쳐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어떤 벼룩은 혼자 일하고, 어떤 벼룩은 자그마한 자기 회사(자영업)가 있고, 또 어떤 벼룩은 파트너십으로 참가하며 사는 시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무소속 상태로 벼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과 100세 시대. 세상 모든 벼룩들의 건투를 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꾼다.

기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사·조선대 강사

필자는 지난 7월 23일 조선대학교 학술대회에서 '2020년 코로나19 대응행에 따른 공동 주택의 대응과 그 성과'를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공동 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에 대한 공동 주택의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

공동 주택은 검역의 1차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공동 주택은 이동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검역(檢疫)의 최일선이 되어야 한다. 사실 공동 주택에서 집단 감염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

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빠른 속도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주거 문화 특성고 공동 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노고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방역 당국의 예방 지침을 일선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했던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회장 이상운)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처럼 공동 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활동이 가법지만은 않은 것은 밀접한 공동체 생활 공간에서 감염병 예방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감염병 예방 효과를 파악하고 가늠하는 데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향후 다양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 우한 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웃 나라 한국으로 곧바로 전파되었다. 빠른 확산에 우리 사회는 긴장했고 혼란스러웠지만 당국의 체계적인 역학 조사와 확진자 동선 파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며, 그 성과는 세계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제 공무원과 의료진만으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지금의 상황 극복을 예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공동 주택 관리 종사자들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단지내 자체 소독과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 특히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 매일 소독을 하고, 밀폐된 승강기 내 소독뿐만 아니라 현관 입구와 주민들의 동선과 수시로 걸치는 재활용 수거장 등에서 감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관리사무소에 열감지기를 비치하여 찾아오는 입주주민들의 열을 체크하는 등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홍보는 주민들로 하여금 감염 예방

에 대한 경각심을 끌어 올림으로써 공동 주택에서의 집단 감염을 미연에 차단시켰다.

그러나 공동 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직업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보건 장비는 마스크 하나일 뿐이다. 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입주주민들의 현저히 낮은 인식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사무실 내의 투병 칸막이 등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며, 열감지 체크기 등의 비치도 한참 뒤에서야 가능했을 뿐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출입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 물품과 등기 수령을 위해 입주주민들의 출입이 잦았다. 검역에 대해 국가 예산(혹은 지자체 예산) 지원은 공동 주택에 인색하다.

사회 안전망의 최전선이어야 할 공동 주택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보전, 그리고 그들의 역할 및 위상 제고는 지역 사회의 상생 문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社說

안일한 '재난 관리 행정'이 폭우 피해 키웠다

엇그제 광주·전남 지역에 발생한 수해는 참으로 막심했다. 사흘간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당국의 어설피고 안일한 재난 관리가 피해를 키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구례군 구례읍의 경우 섬진강 지류인 서서천 제방 일부가 유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시가지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물난리의 원인으로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 조절 실패를 꼽는다. 상류에 자리한 섬진강댐이 하류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문 개방을 최소화했어야 하는데 되레 큰 폭으로 개방한 탓이라는 것이다. 실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난 8일 오전 6시까지는 초당 50~600t을 방류하다가 오전 8시부터 초당 1000t으로 늘렸고, 오전 9시부터는 초당 1800t 이상의 물을 쏟아 냈다.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산사태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곳

에선 지난 7일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네 채가 매몰됐고 그 안에 있던 주민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민들은 전남도가 국도 15호선 공사를 하면서 마을 위쪽 산중턱 도로와 야산에 쌓아 둔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것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집중호우가 예보됐고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미리 해당 토사에 대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 남구 대촌동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수문이 수년 전 공사 이후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범람하는 강물을 막지 못하고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은 사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관리 시스템을 촘촘히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졸지에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섬 아닌 섬'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조정을

완도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최근 생활 민원이 하나 올라왔다. "다리가 연결돼 이제 육지가 됐는데 도서 지역 할증요금 5000원을 언제까지 더 내야 할지나?" 과거엔 섬이었지만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육지화됐는데도 택배회사들이 여전히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을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였다.

실제로 택배 등 화물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을 여전히 선박이 오가던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 요금의 경우 육지에서는 3000원 안팎인 데 비해 섬에서는 5000원~1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엔 택배 물품이나 화물이 섬에 들어오려면 선박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할증요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연륙이 된 지 오래된 일부 섬을 제외하면 비교적 최근에 연륙·연도가 이

뤄진 곳에서는 아직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완도군 군외면 중리-황진리는 다리로 연결됐는데도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육지의 경우 2000원~2500원인 택배비가 이 마을에서는 5000원이 더 할증돼 7000원을 넘는다. 신안군의 경우도 목표와 합해도가 이어진 연륙교 개통 이후부터 택배요금 할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과 완도군은 "국도교통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섬의 경우 육지와 연결됐더라도 오지와 마찬가지로 원거리 지역인 데다 택배비 등은 민간 계약이므로 정부가 규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요금 적용'이라는 점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생활 여건이 어려므로 열악한 섬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無等鼓**

“얇은(좁은)은 태산을 밀듯이 하고(前推泰山)/ 뒷은(깍지손)은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듯 하라(後握虎尾).”

활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학 법칙을 활용하는 도구다. '전주태산 후악호미'. 이 여덟 자의 한자는 활쏘기의 원칙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활을 움켜쥔 '좁은'과 화살을 활시위에 건 '깍지손'을 동시에 균등한 힘으로 밀고 당겨야 한다. 활의 탄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화살을 멀리, 정확하게 보내기 위함이다.

흔히 중국은 창(槍),

동호인들은 광주 400여 명과 전남 3000여 명 등 전국에 4만여 명이 있다. 10대 학생부터 8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전통 활쏘기 문화를 이으면서 생활스포츠의 하나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기자 역시 6년 전 우연한 계기로 활을 잡은 뒤 틈틈이 활을 내며(쏘며) 건강 유지는 물론 마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광주에는 관덕정(남구 사동)과 무등덕목인 육례(六禮)중의 하나였다. 그 활쏘기가 지금도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 터.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활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